

실직 여성가장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가족결속력 및 대처와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The Effect of Family Stress on Psychological Distress in Unemployed Female Head: The Interactions with Family Solidarity and Coping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전공
교 수 조 희 선

Dept. of family management & Consumer,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 Cho, Hee Sun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stress, coping, family resources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interactions with family solidarity and coping in unemployed female head. The sample was 101 unemployed female heads(without husband) who are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amily solidarity had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to moderat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But the effect of coping on psychological distress was not 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family solidarity was very important to decrease the psychological distress (somatization, anxiety, depression) of unemployed female head.

◆ key word: 여성가장, 실직여성, 가족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가족결속력, 대처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실직은 가정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가정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함과 동시에 실직자 본인과 가족원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위기를 초래하며 심지어는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가족을 해체시키기도 한다.

특히 한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족재정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고 불안, 우울, 가족갈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반항을 가져온다. 그리고 실직에 의해 재조직되는 가족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연쇄충돌은 만성적 가족갈등 및 폭력, 별거 및 가족해체, 무기력감, 약물남용,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질병 등 부적응적 가족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Vosler, 1990).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조사를 살펴보면 실직에 직면한 가족들의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김승권, 1998). 실직자가족은 실직 후 친교활동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사교육 및 상급학교 진학을 중단하거나 외식과 문화·여가활동을 감소시키는 등의 생활변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실직자 가정은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양육비 또는 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가정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이 가정생활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실직 관련 연구는 주로 남성 가정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남편이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정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성실직 역시 남성실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직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직 후에도 남성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경숙, 1999). 여성은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대상이며, 재취업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후순위에 놓여 있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여성 실직은 곧바로 가구의 소득상실로 이어져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김태홍·문유경, 1999). 뿐만아니라 실직 여성 대부분은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오직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여성이 실직 후 생활실태가 남성보다 더 열악한 이유는 먼저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의 여성이 경기침체의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1998년 10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박경숙, 1999).

수원여성회에서 실시한 실직 여성가장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신청자 125명을 대상으로 1998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에 불과하였으며, 실업수당이 있다는 비율 역시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IMF이후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여성가장의 비율이 7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여성가장이 취업시 아동보호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건강문제와 정서적 불안문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원숙, 1998).

여성특별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1998년 6월에 서울과 부산지역 일부 626명의 실직가구와 696명의 실직자를 조사하면서 여성실업자와 실업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여성가구 주가족의 여성실직자, 남성가구주가족의 여성실직자, 남성가구주가족의 남성실직자를 비교한 결과, 여성가구주가족의 여성실직자가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 곤란이 더 현저하므로 한시적 생활보호이용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김승권·이상현·양혜경, 1998).

이상을 통해 살펴볼 때 여성 가정들이 실직으로

인해 겪는 고통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스트레스는 실직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한 가족 모두가 일정한 비율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처에 따라 위기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Mucubbin, Patterson & Wilson, 198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우리사회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소외된 실직 여성가장이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자원, 대처가 그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또한 가족 자원 및 대처가 가족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효과로써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유용한 가족 자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여성가장가족의 가족강화 지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 스트레스, 가족 자원, 대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족 결속력 및 대처는 가족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충 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개인은 실직으로 인해 다음의 네가지 요소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Fryer & Payne, 1986; 김명언, 1998 재인용). 첫째, 고정수입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자립감의 상실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부실화를 가져온다. 둘째, 개인이 고용조직과 자발적으로 맺은 상호관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되어 권한 행사를 박탈당하게 된다. 셋째, 실직은 취업 시 가져온 소속조직과의 유대를 단절시킨다. 넷째, 개인의 자아정체감, 성취감,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어왔던 일(작업)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직 상황은 환경적 요구 충족에 필요한 개인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적대감, 음주문제, 가족간의 불화 등 부정적인 개인의 반응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Jahoda, 1982; Kessler, Turner & House, 1988). Schultz와 Schultz(1994)는 죄책감,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신체적 불만, 알코올과 약물남용, 이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학대, 자살 충동 등의 감정들이 실직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직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기대, 목표, 가치를 전환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고 하였다. Lynd-Stevenson(1996)도 실직이 개인에게 일이라는 영역을 빼앗아 개인으로 하여금 절망감을 겪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였으며 Hepworth(1980)는 개인이 실직 사건을 통해 심각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실직자는 직업인에 비해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수준을 나타내며, 극심한 외적 통제소재의 사용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Winefield & Tiggeman, 1990). 실직을 경험한 개인은 우울감이 증가되고 권태감이 늘어나며 삶의 만족감이 감소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며 냉담한 감정이 증가하고 인생에 대해 체념하고 비관하게 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한다(Leana & Feldman, 1992). Kasl과 Cobb(1982)의 연구결과에서도 실직 후 재취업이 된 집단보다 실직상태로 남아 있는 집단에서 불안과 긴장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Coates, Moyer 및 Wellman(1969)도 높은 수준의 불안 증상을 나타낸 사람들이 전년도에 경험한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실직을 보고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실직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유의하게 지적하고 있는 신체화 증상과 불안, 우울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설정하였으며, 실직 여성가장이 갖는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직 여성의 가족스트레스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가족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해 자녀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의 세가지 영역을 다루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가구의 6.7%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부모나 친척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여성실직자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실감할 수 있다(김승권, 1998). 또한 남녀 실직자들의 65%가 실직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위축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실직 이후 가족관계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부부관계 문제, 친척과의 왕래의 감소와 더불어 자녀관련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현숙, 1998). 특히 장기간의 실업에 의해 야기되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아동들에게 정신의학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1983; 안병철, 1998 재인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연구에서 실직 가정의 긴장고조와 부모의 의기소침 때문에 자녀들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Morris-Vann, 1984; 안병철, 1998 재인용). 여성가장(편모)들은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일차적이라고 볼 때 실직으로 야기되는 자녀관계 스트레스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는 실직 여성가장들에게 생계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실직 여성가장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90.7%이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18.3%, 월소득 30만원 이하가 19.5%, 31만-50만원 사이가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만원 이하의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59%나 되었고, 가구의 평균소득은 32만 3천원이었다. 실직 여성가장들은 가장 필요한 실업대책으로 44.1%가 의료보험

혜택, 학자금 용자 및 보조, 생계비 보조를 통한 생계보조를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22.3%),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 정보망 확대(13.1%),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10.1%)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여성신문, 1999년 1월 15일). 따라서 실직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그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직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Jahoda(1982)의 결핍모델(deprivation model)에 의하면 실직은 노동자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며, 일상생활에서도 비활동적으로 이끌며, 따라서 모든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직은 이미 지적인 재정적 안정 뿐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의미 있는 활동, 직장 동료들, 일상생활에서 접촉해온 친지 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실직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족 자원

실업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주의 실업으로 정규적인 소득원을 상실한 상황에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이나 다른 가족원의 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지지를 통한 가족결속력,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되는 사회적지지 등은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1) 경제적 자원

Jacobson(1987)은 미국의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한 연구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만 적절한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안과 정서장애로 어려움을 겪음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경제적 안정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Payne & Hartley, 1987; Leana & Feldman, 1988, 1990). 반면에 Kiesel-

bach와 Svensson(1988)은 스웨덴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더라도 실직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실업 첫해에 실직 전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실직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으로 인해 상당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곤란도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일부인 신체화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노연희·김명언, 1999)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남성 실직 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시로나마 소득이 있는 실직자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아 결론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성혜영·조희선, 1999). 이상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실직가장들이 가족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가족 결속력

실직이란 사건은 실직 전에 누려왔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을 끊어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오경자, 1998).

Shams(1993)는 실직 후 가족들의 지지가 실직자들의 심리적 건강 유지에 기여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으며 Voydanoff와 Donnelly(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간의 결속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스트레스 완화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

Rayman(1982)은 남성 실직자는 배우자로부터의 도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으며, 반면 여성가장의 경우는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실직 상황에서 나타나는 배우자의 지지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실직자는 남녀 모두 높은 관계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실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덜 지적하였고, '회피' 대처방식의 사용을 적게 하였으며, 전문가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Walsh & Jackson, 1995). 이와 같이 실직자 가족의 구조적 특성은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또한 가족성원간의 기대의 공유, 공동목표, 친밀성과 유대감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 결속력은 가족을 구조적으로 건설하게 하므로 결국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문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장혜경·김영란, 1999)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 연구는 여성가장(편모)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남성실직가장 보다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따라서 가족원간의 결속력이 더욱 큰 효과로 작용하여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일상적 사회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된 지지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Vaux et al, 1986).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실직 상황에서도 순기능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re, 1978). 즉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은 실직자들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은 실직자들보다 실직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 증후를 적게 보였다(Ensminger & Celentano, 1990).

Jones(1991)는 실직자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실직자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재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미국 전역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Auslander(1988)의 연구에서는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원만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경우 실직자의 건강상태가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의 실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Mallinckrodt와 Brent(1992)는 해고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문제와 실직 기간(length)이 내적 통제소재,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종속변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재정적 문제와 실직기간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또한 실직 이후 4개월간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가 구직행동에 24%의 설명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었으며, 구직에 실패했을 경우 우울 등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Vinokur & Caplan, 1987). Gore (1978)도 배우자, 친척, 친구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수용이 높은 실직자가 '사회적지지' 수용이 낮은 실직자에 비해 더욱 낮은 빈도로 정서적 갈등을 겪는 것을 밝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할은 비 실직자의 경우보다 실직자에게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자원에 포함하였다.

4. 대처

Brehm(1966)은 개인이 자기 조절 능력을 위협받게 되면 자신의 조절력과 자유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저항(reactance)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실직자의 경우도 실직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전략을 세우거나 실직으로 인해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 등은 실직에 대한 대처의 예가 될 수 있다(Buss & Redburn, 1983). 최근의 연구들은 실직자가 고용환경의 변화에 의한 희생양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완전히 수동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며(Leana et al., 1998), 실직에 대해 구체적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왔다(Caplan, Vinokur, Price & Van Ryn, 1989).

실직자들이 시도하는 대처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온다.

첫째,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준다. 실직자

들은 우울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쉽게 분노한다. 그러나 종종 실직이라는 사건에 잘 대처한 개인은 자신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행복하지 못했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자립 가능한 공동체로 이동하게 되는 이점을 갖는다(Latack & Dozier, 1986).

둘째, 실직 스트레스의 원천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Leana와 Feldman(1990)은 실직자들이 신체적 활동을 통해 실직으로 인한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얻었다고 하였다.

셋째, 비록 대처 노력이 새로운 직업을 획득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해도 실직자들은 일상생활의 구조를 형성하고 동료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Leana와 Feldman(1992)은 실직자들이 실직을 극복하기 위해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주도적 구직활동, 직업 재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하는 것,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 등을 문제 해결적 대처로, 실업보험의 신청, 지역단체 활동에 참여, 사회적지지 추구 등은 정서적 대처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실직 상황에서 문제해결적 대처는 주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정서적 대처는 실직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Connie(1997)는 자아존중감, 지각된 통제감, 낙관주의 성향 등이 높은 사람을 스트레스 통제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보고, 실직 대처방식과 정신건강, 재취업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실직 대처방식에는 적극적 구직행동, 긍정적 자기평가, 실직과 거리 두기, 직업 평가절하(job devaluation)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통제 능력이 높은 집단의 적극적 구직행동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었다. 성혜영·조희선(1999)의 연구에서도 실직자의 문제 해결적 대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이 실직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처방식으로 문제 해결적 대처를 유의하게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실직자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의 영향과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기 위해 문제 해결적 대처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가족 스트레스 척도, 가족 자원 척도, 대처 척도,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스트레스는 자녀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로 구성하였으며, 가족 자원은 경제적 자원, 가족 결속력,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신체화, 불안, 우울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구성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스트레스 척도

가족 스트레스 척도는 McCubbin, Wilson 및 Patterson(1983)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를 기초로 하여 Holms와 Rahe(1987), P. R. Amato(1987)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가족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자녀와의 의견충돌에 관한 자녀관계 스트레스, '갸아야할 빛이 있다'는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 '친척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하였다. 가족 스트레스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alpha = .73$ 이었다.

2) 가족자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결속력 척도는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와 가족 건강성 척도(Family Strengths Scale)에서 적합한 30문항을 발췌하여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중 '급한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저축한 돈이나 재산이 있는가' 등의 경제적 자원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76$ 이었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등의 가족 결속력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95$,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친척이나

친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등의 사회적 지지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3) 대처 척도

대처 척도는 한국판 CSQ(Coping Style Questionnaire)(Roger et al., 1993)를 이용한 이현수(1999)의 연구에서 '잘 안되리라 생각했지만 적어도 무언가 해 보려고 한다'는 등의 문제해결적 대처를 발췌하여 5점 척도의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처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80$ 이었다.

4)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는 한국판 표준화 연구로서 정상인을 위해 각급 상담 장면과 정신과 임상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하 SCL-90-R으로 약한다)의 일부(신체화, 불안, 우울)로써 모두 30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숨쉬기가 거북하다' 등의 신체화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으며,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등의 불안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93$, '기분이 울적하다' 등의 우울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91$ 이었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 전체의 내적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가장(편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2월 29일에 조사자가 직접 위 기관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질문지 110부를 배부하고, 110부(100%) 모두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한 사례(9부)를 제외하고, 총 101부(91.8%)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1세에서 59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42.6세, 표준편차는 7.42였다. 학력은 초등졸 이하가 5.1%, 중졸 30.3%, 고졸 51.5%, 대졸이상이 13.1%로 중졸과 고졸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과거에 종사한 직업의 종류로는 주부가 42.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및 판매직

(17.3%), 사무직(15.3%), 서어비스직(12.2%), 단순 노무직(7.1%), 전문직·경영관리직(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희망하는 직업은 자영업 및 판매직(34.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경영관리직(24.2%)과 서비스직(24.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30만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48.5%로 이는 실직 여성들의 재정적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월소득은 31만원에서 6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7%이었으며, 61만원에서 100만원은 21.8%, 101만원에서 150만원은 9.9%, 151만원에서 200만원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현재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84.4%)이 확대가족(15.6%)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가 있다는 비율(69.1%)이 종교가 없다는 비율(30.9%) 보다 높았다. 구직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웃이나 친지에게 얻는다고 답한 비율이 44.0%였고, 구청이 40.7%, 동사무소가 15.4%로 나타나 관공서의 구직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56.1%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경제문제가 8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건강문제(10.3%)와 자녀문제(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8.0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 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질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 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과 이원변량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 스트레스, 가족 자원, 대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자원, 대처가 실직 여성가

장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그 결과 각 독립변인들의 상관계수가 모두 $r = .60$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안전함을 보였다.

〈표 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1. 가족 스트레스	1.000				
2. 경제적 자원	-.317*	1.000			
3. 가족 결속력	-.100	.082	1.000		
4. 사회적 지지	-.117	.143	.407**	1.000	
5. 대처	-.028	-.111	.398**	.221	1.000

* $P < .05$ ** $P < .01$

실직 여성가장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 스트레스, 경제적 자원, 가족 결속력, 사회적 지지, 대처의 5개 변인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트레스($P < .05$)와 가족 결속력($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반면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지지, 대처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가족 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결속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들 변인에 의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34.4%가 설명

〈표 2〉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n=101)

	심리적 디스트레스	
	B	β
가족 스트레스	1.446	.369*
경제적 자원	-.748	-.115
가족 결속력	-.907	-.409*
사회적 지지	.338	.081
대처	.151	.030
constant	84.525	
R ²	.344	

* $P < .05$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준 가족 스트레스, 가족 결속력의 두 변인과 여기에 대처를 포함하여 추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1단계에서 가족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영향($p < .01$)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 가족 결속력을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가족 스트레스($p < .01$)와 가족 결속력($p < .01$)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R^2 = .190$ 에서 $R^2 = .326$ 으로 증가되었다. 3단계에서는 대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R^2 = .329$ 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실직 여성가장들이 경험하는 가족 스트레스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가족 결속력이 이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성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유

용한 변인이었던 것(성혜영, 조희선, 1999)과 마찬가지로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원의 도움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결속력 및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일반적으로 가족 결속력과 대처는 디스트레스의 이차적 결과인 부정적 정서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이 가족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스트레스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한편 가족 결속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결속력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P < .05$).

다음으로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결속력간의 상호

<표 3>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세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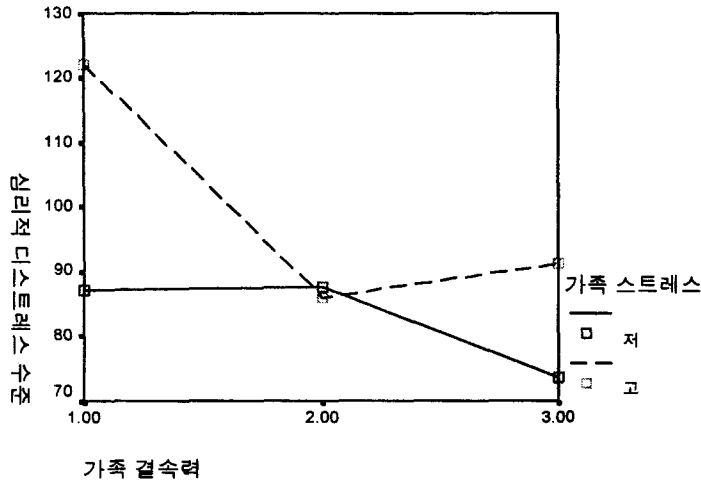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가족 스트레스	1.710	.436**	1.564	.399**	1.561	.398**
가족 결속력			-.822	-.371**	-.870	-.393**
대처					.276	.005
constant	39.999		75.764		71.361	
R ²	.190		.326		.329	

** P<.01

<표 4>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결속력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가족 스트레스(A)	3121.209	1	3121.209	7.034*
가족 결속력(B)	2239.407	2	1119.704	2.523
상호작용(A×B)	3024.167	2	1512.084	3.408*
오차	15086.433	34	443.719	
전체	24841.600	39		

*P<.05



〈그림 1〉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결속력의 상호작용 효과

〈표 5〉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가족 스트레스(A)	3870.796	1	3870.796	6.383*
대처(B)	456.163	2	228.082	.376
상호작용(A×B)	1052.067	2	526.034	.867
오차	21831.562	36	606.432	
전체	27019.071	41		

* $P < .05$

작용 효과검증을 그림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이때 가족 결속력을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나누고, 가족 스트레스를 고, 저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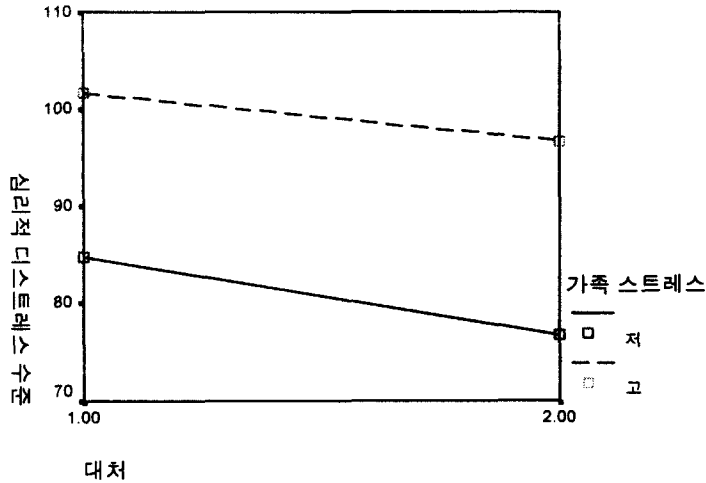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변량분석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스트레스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그러나 대처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 간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이때 대처를 두 수준으로 나누고, 가족 스트레스를 고, 저의 수준으로 나누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성 실직가장들이 경험하는 가족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족자원과 대처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실직가장(편모)들 1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실직가장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족스트레스는 정적 영향을, 가족결속력은 부적인 영



〈그림 2〉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결속력은 가족 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여성 실직 가장들의 신체화 증상과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에서 가족결속력은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들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력과 사회적지지 등의 가족자원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남녀 실직자들의 경제적인 곤란도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다(노연희·김명언, 1999)고 한 연구결과와, 남성 실직자들의 경우 이들의 경제력은 스트레스인지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성혜영·조희선, 1999)고 한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지적하고 싶다. 즉 여성가장의 경우 실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직은 물론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가져다주지만 실직 이전에도 경제력은 여의치 못했으므로 실직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지 않아 그들의 심리적 디스트

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여성가장이 갖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평소 이들의 절박한 경제생활을 깨닫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 역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못하였다. 앞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가족결속력이 유난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못한 점에서 Rayman이 지적한 여성 실직가장의 경우 친지 및 사회적 기관에 더욱 의존한다는 서양의 가족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 가족은 상당히 부모 자녀 중심의 핵가족만으로 폐쇄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관공서 등을 활용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실제적으로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해도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에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

셋째, 실직 여성가장들의 대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결과를 참고로 보면 모자가정과 부부가정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조희선의 연구에서 학력에 따라 특히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이 유의미한($P < .01$) 차이를 보였던 점은 본 연구 대상의 학력이 낮으며 또한 대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완효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실직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추후에는 남성 실직가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배우자지지의 중요성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사회에서 남녀 성차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1998). 조직감량의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집행자,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67-95.
- 김승권(1998). 여성 실직자 가정의 복지요구와 1999년 실업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승권 · 이상현 · 양혜경(1998). 여성 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 62-73.
- 김태홍 · 문유경(1999). 여성 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99연구보고서(230-3), 3-4.
- 노연희 · 김명언(1999).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7(1), 115-137.
- 박경숙(1999). 여성과 남성 실업 가구주의 실업 실태와 실업 대책 활용의 비교 및 정책 제안. 한국사회복지학 37, 143-169.
- 성혜영 · 조희선(1999). 실직 가정의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81-304.
- 신준섭 · 이영분(1999). 사회적지지와 실직자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 241-269.
- 안병철(1998). 실업과 가족. 경제위기와 가족 전략의 모색.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15.
- 오경자(1998). 실직이 개인의 사회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제 불황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67-95.
- 이원숙(1998). 실직 여성 가정의 삶과 공공근로사업. 여성 실업 극복을 위한 경기 여성포럼, 59-68.
- 이현수(1995).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의 특징. 성격 및 개인차 연구, 4, 89-121.
- 장혜경 · 김영란(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99연구보고서(240-1), 50-55.
- 정현숙(1998). 실직자 가정의 실태와 지원 요구도. 실직자 가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67-95.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7-98
- Auslander, G. K.(1988). Social networks and health status of the unemployed. *Health and Social Work*, 13(3), 191-200.
- Brehm, J. W.(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 Academy Press.
- Buss, T. F., & Redburn, F. S.(1983). Mass unemployment. New York. Free Press.
- Caplan, R. D., Vinokur, A. D., Price, R. H. & Van Ryn, M.(1989).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759-769.
- Coates, D., Moyer, S., & Wellman, B.(1969). The Yurklea study of urban mental health: Symptom, problems and life event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60, 471-481.
- Connie, R. W.(199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coping behavior among unemployed and reemployed individu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731-744.
- Gore, S.(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Jahoda, M.(1981). Work. employment and unemploy-

- ment: Values, theory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6, 184-191.
- Jahoda, M.(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L.(1991). Unemployment: The effect on social networks, depression, and reemployment opportuniti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5 (1/2), 1-22.
- Kasl, S. V., & Cobb, S.(1982). The experience losing job. Some effects on cardiovascular functioning.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 34, 88-109.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1987).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17, 959-961.
- Kieselbach, T.,& Svensson, P. G.(1988). Health and policy responses to unemployment i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44, 173-191.
- Latact, J. C. & Dozier, J. B.(1986). Job loss as a career transi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375-392.
- Leana, C. R. & Feldman, D. C.(1988).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Perceptions, reactions and coping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14, 375-389.
- Leana, C. R. & Feldman, D. C.(1990).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43, 1155-1181.
- Leana, C. R. & Feldman, D. C.(1992). Coping with job loss (pp 45-47). New york Lexington books.
- Leana, C. R., Feldman, D. C. & Tan, G. Y.(1998).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after a layoff.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85-97.
- Lynd-Stevenson, R. M.(1996). A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unemployment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117-132.
- Mu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R. (1983).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FILE).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289-259) The Free Press.
- Payne, R. L. & Hartley, J.(1987). A test of a model for explaining the affective experience of unemployed me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1-47.
- Schultz, D. P., & Schultz, S. E.(1994). *Psychology and work today: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 281-283). New york. Macmillan Publication.
- Shams, M.(199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employed British Asian m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175-186.
- Vaux, A., J. Phillips, L. Holly, B. Thompson, D. Williams & D. Stewart.(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95-219.
- Vinkor, A. & R. D. Caplan.(1986). Coping with job loss.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9). Multiple role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ntersection of the paid worker, spouse, and parent roles with the role of the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725-738.
- Walsh, S., & Jackson, P. R.(1995). Partner support and gender: Contexts for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Occupation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68(3), 253-268.
- Winefield, A. H., & Tiggemann, M.(1990).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455-459.

〈신문〉

- 여성신문(1999). 저소득 실직 여성 가장 기댈 곳은 정부 지원. 1월 15일자.